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Tag: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오늘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어서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답이다.

범사란 대소사 모든 일이란 뜻이므로, 그 범위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소망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생각 뜻밖에 잘된 일도 있으며, 황당하고 당황한 일도 있고, 분노가 치밀고 슬픈 일도 있으며,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으며, 많은 손해를 보는 일도 있으며,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분주하고 중요한 일을 해 낸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거지는 오랜 세월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거지다.

나쁜 일보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나쁜 일이나 불행한 일들을 대비하며 조심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무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일이 잘되고 원하는대로

풀리든, 그렇지 않고 일이 잘 못되고 망하게 되었어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기는 분도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분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훼방꾼이 아니시다.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별을 주시기 위해서 놀부 심보를 발휘해서 나를 골탕먹일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아버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인다. 바뀌 말하면 그 자식이 악할지라도 아버지는 그에게 최선을 다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세상에는 악하면서도 똑똑하고 근면해서 그 악한짓을 아주 잘 해내는 악한이 아주 많다. 매우 안타깝게도 착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약간 게으르기까지 해서 자신이 계획한 선한 일도 별로 잘 해내지 못하는 선인(이런 사람도 선인이라고 해야 하나?)도 아주 많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임을 주목하라.

이 명령은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일을 꾸미고 추진하라는 뜻이다.

즉, 일을 일답게, 일이 잘 되어지도록, 일이 무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약 일이 잘못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상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만약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 재빠르게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쪽으로(B plan)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어서, 또는 다행스러운 결과 때문에 감사가 되도록 일을 하라는 뜻이다.

반면, 확김에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감사에 관심이

없다. 화풀이에 관심이 많다. 화는 풀리지만 일은 꼬인다. 관계는 꼬인다. 인생의 초점이 감사에 있다면 이런 위기에서 지혜로워진다.

자존심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시기심 때문에 심술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질투하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실수하는 사람도 있다. 서운해서 뒤로 빠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 손해 볼까봐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있다. 거짓말이 들통 날까봐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범사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불평이란 단순히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이게 감사할만한 일인지, 원망하고 짜증낼 일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유치원생이 하는 어리광이다. 이렇듯 인생의 순간 순간 어떤 것은 감사하고 또 어떤 것은 원망하고 짜증낸다면, 그것은 아직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게 아닌, 삶의 대부분을 엄마에게 의존해서 어리광을 피우며 엄마의 처분에 대해서 감사나 원망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철부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요즘엔 온통 사회가 어리광 부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다. 정부 엄마가 국민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분주하다. 가장 불멘소리를 하며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하는 자들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이다.

도처에 악당이 즐비한 세상인데 어른이란 무엇인가? 어른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악당 앞에서 불평이 통하는가? 어른이란 악당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닌가?

(소위 대학을 졸업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 이치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지성인이다. 아직도 깨우쳐야 할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며,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

람이다.)

자유 민주주의란 악당이 없는 사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경제란 정부라는 온실속에서 보장된 경제활동을 하는 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능력자의 세상이라는 뜻이고, 지혜로운 자들의 세상이라는 뜻이고, 힘있는 자들의 세상이라는 뜻이고, 신용있는 자들의 세상이라는 뜻이고, 도전하는 자들의 세상이라는 뜻이고, 실력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세상이라는 뜻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다는 신앙고백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

그러므로 감사는 운명도 아니며 팔자도 아니며, 울며 겨자 먹듯이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며, 결코 요행도 아니며, 도박도 아니다.(10만원 감사가 100만원 낳는게 아니란 뜻.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말은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됨.)

감사란 내가 전쟁하면서 얻어내는 전리품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명령인 셈이다.

그래서 실패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는 명령이고, 병에 걸렸을 때 감사하라는 것은 그 병에서 나아가서 건강하라는 명령이고, 일이 무산되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은 빨리 새로운 일을 기획해서 추진하라는 명령이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에 기도를 더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적이 감사를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이 용감하게 도전했고, 모든 신용을 철저히 지켰으며, 결코 배신하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당들 때문에 곤란에 처해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119를 눌러라.

결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편이고 이런 자들이 당신의 자녀임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성경: 시편 23편

Tag:

1 [다윗의 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
하시느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
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
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
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23:1-6)

시편 23편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또한 주일성수는 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간 적이 있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
며 기억하는 말씀이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도울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을 ‘구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분들을 마치 ‘집 나간 탕자’라고 취급하는 자들도 있지만, 본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집 나간 탕자인지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누군가 대신해서 판단해 줄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율법주의 교인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들에게 정죄 당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 교회는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 주고 용서해 주는 곳이지만, 자존심이 상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자기 싫은 곳이 교회. 특히 요즘처럼 페미니즘이 발달된 사회에의 교회는 순종적인 여인에 대한 성경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해되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순종이라는 덕목을 남성과 권위주의에 대한 덕목에 한정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렇다. 순종은 질서와 순서에 관련된 예절로서의 덕목이며, 종교적 의미에서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관의 포기, 또는 재산권의 포기나 권리의 포기를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않된다.)

만약 교회가 분란이 나서 싸우는 것이 싫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식구 가운데 교회의 직분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교

회를 떠난 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직장생활 때문에 부득불 교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들을 교회에 초청할 때는 헌금이나, 주일 성수나, 경건생활에 대해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지만, 교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관심이 없는 주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주제로 초청하기를 꺼릴 필요조차 없다.

구도자 맞춤형 전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경건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승냥찾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헤아리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우하라.

믿음이란, 영적인 감각이다. 오감 밖에 없는 우리는 아직 잘 발달해 있지 않은 감각이다.

헬렌켈러의 스승 앤 설리번.

-그녀는 알콜중독자 아버지, 결핵환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8세때 어머니는 죽고, 동생도 같은 병으로 죽었으며, 자신은 시력을

잃고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었다.

2년동안 정신병동에서 로라의 정성어린 간호로 정신병동을 나오게 되었다.

그녀는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학교에서 개안 수술을 받아 시력까지 되찾게 되었다.

그후 눈멀고, 귀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헬렌켈러를 맡아 가르치게 되었다.

그녀는 세가지 감각이 죽어버린 아이에게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을 통해서 세가지 감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감각이 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만 깨어난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그 영혼을 용서해야 하고, 그 영혼을 배려해야 하고, 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비난하면 그 비난은 저주가 되어 영적인 감각을 죽여버릴 것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6절 말씀을 자신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 영혼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노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보기도이다.

-초청잔치란 그를 적어도 1년에 3회~1회만이라도 교회에 데려오는 행사이다.

